

##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바람직한 학제에 관한 연구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에 관한 검토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동아의대 생리학교실<sup>1)</sup>,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sup>2)</sup>,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sup>3)</sup>, 전북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sup>4)</sup>, 충남의대 병리학교실<sup>5)</sup>

최종상 · 서덕준<sup>1)</sup> · 채종일<sup>2)</sup> · 오희철<sup>3)</sup> · 황의근<sup>4)</sup> · 강대영<sup>5)</sup>

### = Abstract =

### A Study of Medi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Jong Sang Choi, M.D., Duck Joon Suh, M.D.<sup>1)</sup>, Jong Yil Chai, M.D.<sup>2)</sup>, Heechoul Ohrr, M.D.<sup>3)</sup>, Ik Keun Hwang, M.D.<sup>4)</sup> and Dae Young Kang, M.D.<sup>5)</sup>

*Department of Pathology, Korea University, <sup>1) Department of Physiology, Dong-A University</sup>*

<sup>2) Department of Parasit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sup></sup>

<sup>4) Department of Psychiatry, Chunbook University and <sup>5) Department of Pathology Choongnam University</sup></sup>

There is a trial to increase as four years of the premedical course to make doctors with better humanities and variable educational backgrounds and good researchers in basic medicines. We studied the trial i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 in several viewpoints. There will be a confusion between doctors in an organization and there are many problems expected with two different educational system in a country. Moreover, two years of premedical course and four years of medical course are enough to be a clinician, especially a primary care doctor, and there will be an increased costs and late age to be a doctor if premedical course are increased as four years.

It is not a real reason for the lack of applicants to be good researchers in basic medicines that short promedical course and lack of non-medical educational backgrounds. Also situation of medical schools in Korea is not suffice to extend their facilities and faculties. Finally advantages from the extension of the premedical course can be gained with introductions of the limited bachelor's admission and or dual major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he single educational system to be a doctor and leaving the system to the discretion of the medical schools or universities.

---

**Key Words:** Medical education system, Extended premedical course, Limited bachelor's admission, Dual major system

##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의과대학의 학제를 현행 2(의예과)+4(의학과)년제, 즉 6년제를 계속해야 하느냐 또는 4+4제, 즉 8년제로 전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는 현재의 의예과 2년 교육과정이 대체로 부실하다고 평가되고 있고 의학과 4년의 과정은 너무나 꽉 짜여져 있어 의과대학의 학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하여 의과대학을 대학원으로 승격시키고 4년제 학부를 졸업한 학생을 입학시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2+4제, 4+4제, 또는 2+4 및 4+4의 병합제 등의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한편, 선진국의 최근 의학교육 학제 추세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학제가 어떤 유형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 연구 배경

### 1. 우리나라 의과대학 학제의 변천과정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제외한 ‘의학전문학교’(세브란스의전, 경성의전 등)는 모두 4년제의 학제를 갖고 있었다. 1946년 국립 서울대학 교가 개교하면서 오늘날의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제의 학제가 확립되었고, 이후 각 전문학교들이 의과대학으로 되면서 자체 대학에 의예과를 설치하여 지금의 6년제(2+4) 학제가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1954년에는 가톨릭대학 의학부가 설립되면서 단과대학 형식으로 의학부내에 의예과 과정을 둔 소위 6년제 교육제도(의과대학에 의예과가 소속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후 의학 중심의 단과대학 수가 늘어나면서 1996년 현재 국내에 개설된 37개의 의과대학중 6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수가 20개교 정도이다. 나머지 대학은 의예과를 자연과학대학(11개) 또는 이과대학(2개)에 설치하여 예

과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으며, 몇 개의 신설대학은 체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의과대학 6년제와 일반대학 졸업자를 본과에 편입시키는 소위 8년(4+4년)제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도 몇몇 있다.

### 2. 기존 2+4년 학제의 문제점

그러나 그동안 의예과 교육을 포함하여 2+4년 학제에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의예과 교육이 애초에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인적 인격양성, 인성교육,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교육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의예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일부 개선이 시도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 의예과 교육의 주체가 의과대학이 아니고 자연대학 또는 이과대학인 경우가 많으며, 전임교수가 없어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라. 의학과 관련된 인접 학문과의 교류가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는데 제약이 있다.

마. 뒤늦게 동기유발되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일반대학 졸업생들의 의과대학 입학기회가 전혀 없다.

바. 일반대학과 달리 6년간의 교육을 받고도 학사 학위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는데에 불만이 있다는 점 등이다.

### 3.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기존의 학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던 가운데, 대통령자문기구의 하나인 “교육 개혁위원회”는 1995년 9월 22일 의학 및 신학교육 제도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총회를 개최하였다. 그 중 제3소분과에서는 의과대학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4+4년제를 골자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안이 발표되었다. 그 후 교육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몇몇 대학은 학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한편 의료계 한 쪽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는 등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약학대학과 수의과대학이 6년제로 개편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의과대학과의 균형 문제에서 의과대학을 4+4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의학교육의 목표와 학제의 적합성

현재 2+4년제의 의학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의학교육의 목표와 교육 연한의 적합성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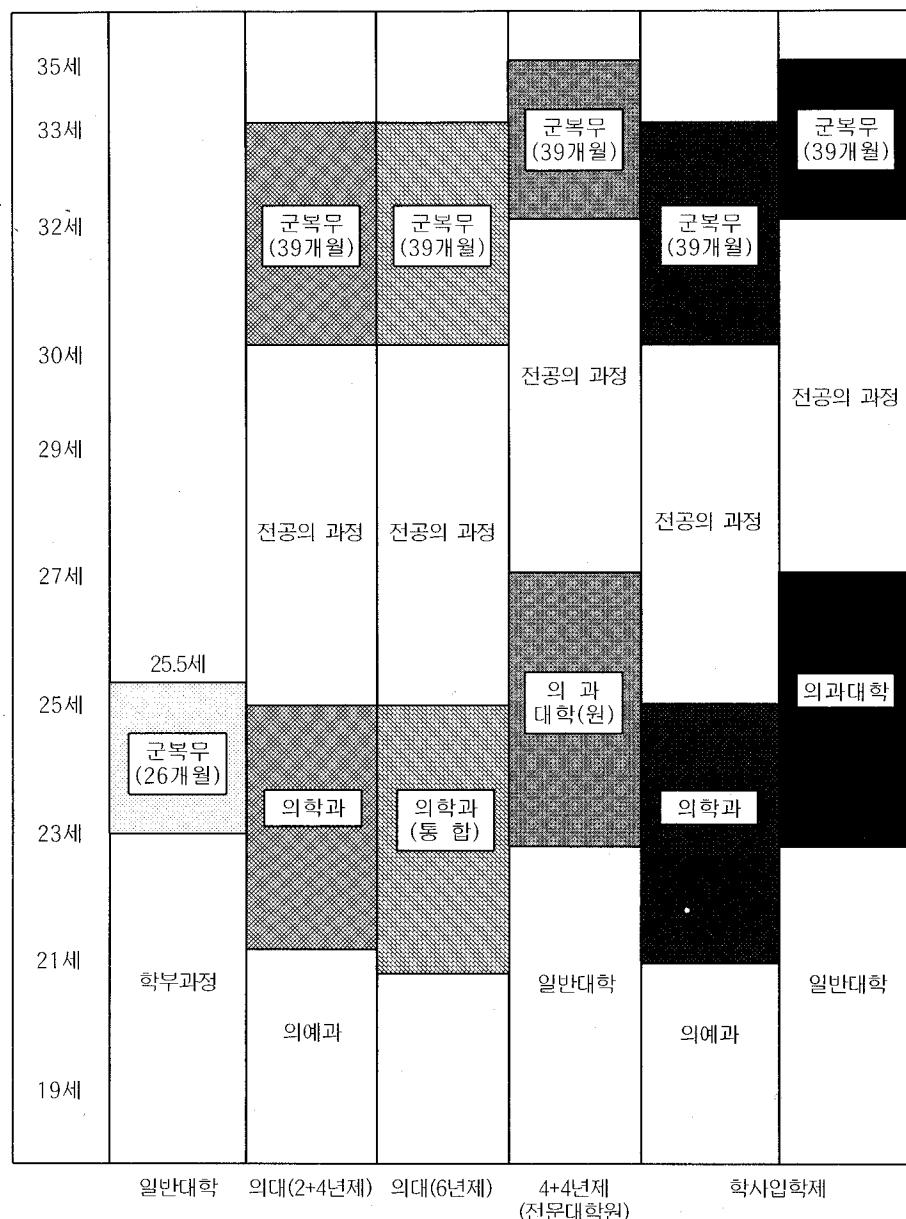


그림 1. 의과대학 학제와 의대 졸업, 전공의 수료 및 군복무 후 나이 비교.

볼 수 있다.

### 1) 임상의사의 양성

임상의사(주로 1차진료 의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현재의 2+4년 제도는 연한으로 볼 때 결코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4+4년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학전문교육 기간은 4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도 6년간의 의학교육 후 외국에 비해 비교적 긴 5년간의 전공의 과정과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병역의무 3년을 마쳐야만 비로소 전문의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소한 14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연령은 대략 33~34세가 된다(그림 1). 만일 4+4년제로 된다면 그 연령이 최소한 35~36세가 되어 너무나 지연된다. 이것은 동시에 임상 의사로서의 잔여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임상의사 양성이 목적인 경우 인성교육과 교양교육이 목표인 예과 교육을 강화하고 본과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한다면 현 6년(또는 2+4년)제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2) 의학자의 양성

최근 의학과 관련된 인접 학문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학도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의학발전의 선도적 및 주도적 역할은 의과대학의 책임인 동시에 의무이다. 의학발전을 위해서는 생명과학분야의 밀거름이 되는 기초의학 부문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학자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근래에 대부분의 의대졸업자가 기초의학 전공을 회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초의학 전공 후 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대학의 교수 정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의대교수, 종합병원 근무, 개원 등등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은 임상의사와는 달리 기초의학 전공자는 의대 교수직이나 연구직 이외에는 직업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학 전공자를 늘리려면 4+4년제를 도입하여 자연기초과학을 전공, 졸업한 학생을 입학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기초의학 전공자의 취업, 급료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크게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4+4년제에서 기대되는 효과, 문제점 및 종합의견

#### 1. 기대효과

현행 2+4년제 또는 6년제 의과대학 학제 이외에 4+4년제 또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론적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들고 있다.

#### 1) 교양교육의 내실화

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 소양과 교양의 함양을 위하여 의예과 2년의 교육을 하고 있으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양교육이 더 충실히 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2)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의사 및 의학자 배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고 의학과 관련 있는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증대시켜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의학자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 3) 현 학위제도의 문제점 개선

8년제의 도입과 함께 학위제도를 개선하면 지금의 학위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4) 효율적인 의학교육

4년제 대학 졸업 후 학생 스스로의 판단이 가능할 때 의학을 선택하여 진학하게 되면 동기유발이 확실하여 효율적인 의학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 5) 자질 높은 기초의학자의 확보

자연과학 등의 전공 배경을 가진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졸업 후 기초의학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이점에 있어서는 타학문 전공 후 의학을 전공하는 경우 임상의사가 되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 2. 문제점

그러나 4+4 학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 1) 의료비의 상승

지금도 긴 의학교육기간이 더욱 연장되어 인력의 지나친 고급화, 의사들의 독점 체제 구축 및 이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 2) 학생의 수학능력 저하

학생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학능력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어 4년제 학사가 학부 중 군복무까지 끌하고 나면 현재보다 나이가 5~6살 더 많아지며, 이들을 대상으로 의학전문교육을 할 경우 오히려 학습 능률에 문제가 있다.

### 3) 의사 배출기관의 이원화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채택한다면 우리 나라의 의사 배출기관이 완전히 이원화되므로 큰 모순이며, 기존 의과대학 배출 의사와의 균형문제(처우, 학위 등), 의학교육 내용의 동질성 결여 문제 등이 발생한다.

### 4) 법적, 제도적 문제

입영문제, 법적인 정원 범위 안에서의 정원 문제 등 제도적 문제를 미리 해결하여야 한다.

### 5) 경제적인 문제

교육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접근도가 낮아져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극히 제한되며 교육비가 크게 상승한다.

### 6) 학생의 질적 저하

경제적 접근도가 낮아지므로 지망 학생의 수가 작

표 1. 의과대학 학제 유형별 장, 단점

장, 단점	2+4(6)년제	4+4년제	학사입학제*
입학시의 학생 성숙도	다소 성숙	성숙	혼합
전공 배경	단순	다양	혼합
의대 입학 동기유발	보통	잘되어 있음	혼합
학생의 수준	최우수	우수	거의 최우수
자율학습 능력	보통	우수(?)	혼합
수학능력	우수	약간 낮아짐	대부분 우수
인성교육의 정도	그리 높지 않다	?	그리 높지 않다
군복무	대부분 군의관	대부분 사병	적정수만 군의관
여성 지원자	25~30% 정도	크게 증가	다소 증가
수학연한(전공의 포함)	최소 33세에 종료	최소 35세에 종료	33~35세에 종료
사회진출 시기	늦다	너무 늦다	늦다
교육비 부담	많다	너무 많다	혼합
생활보장이 되는 나이	늦다	더욱 늦다	혼합
학위 수여	학사(석사 가능?)	석사	학사(석사?)
배출의사의 수준	높다	매우 높다(?)	혼합
기초의학 희망자	극히 적다	적다	극히 적다
국민 의료비	현상황	상승	현상황
의대 정원	동결상태	증가 가능	약간 증가
제도 개선	일부만 필요	대폭 개편 필요	일부만 필요
제도 찬성 여부(의료계)	대부분 찬성	반대 의견 많음	많은 부분 찬성

고 따라서 학생의 질적 저하도 예측할 수 있다.

### 7) 실현 가능성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학제를 운영하여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제 운영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 8) 생활보장 문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의과대학 교육을 마친 후 전문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나이가 35~36세가 되도록 생활보장이 거의 안되는 문제점이 있다.

### 9) 병역 의무에 따른 국방부와의 관계

병역 연기가 어려울 수 있고, 군의관 인력수급에 관한 문제점으로 국방부에서 이 제도를 반대할 수 있다. 일반대학 수학 중 군복무를 필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군의관 요원이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지원자가 많아져 의사인력수급에서 균형을 상실할 수 있다.

### 3. 종합의견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4+4년제 의학교육 제도는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의사의 배출이라는 점에서 장점도 있겠으나, 의사 인력의 지나친 고급화와 의료비의 상승, 의학교육 기관의 이원화, 제도 도입의

당위성 및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더욱 많을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기본 학제는 2+4년제 또는 6년제를 유지하면서 의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학사입학제 또는 복수전공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의사가 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 각국의 의학교육 학제

#### 1. 의사가 되기까지 총 교육기간(초등학교에서 의대 졸업까지)

WHO(1988)가 발행한 세계 각국의 의과대학 현황에서 의학교육 기간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의사가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네팔의 15년부터 우리나라, 일본, 태국 등의 18년 및 르완다, 토크 등의 21년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표 2). 미국,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보다 2년 더 긴 20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와 같거나 오히려 짧은 나라는 총 126개국 중 83개국으로 약 2/3를 차지하며 나머지 1/3 중 대다수는 1년이 더 긴 19년(영국, 벨기에, 이스라엘, 독일 등)이며, 2~3년이 더 긴 나라가 모두 12개국이다. 이 12개국 중 대부분은 미국, 카리브해국 등 미국 영향권의 나라들이다.

표 2. 세계 각국의 의학교육 종료시 연령 비교

총 교육기간(년)*	연 령(세)**	국가수(%)	비 고(국가)
15	21	1 (0.8)	네팔
16	22	5 (4.0)	러시아, 몽고, 중국
17	23	26 (20.6)	미얀마, 브라질, 인도
18	24	51 (40.5)	한국, 일본, 태국
19	25	31 (24.6)	독일, 영국, 벨기에, 이스라엘
20	26	8 (6.3)	프랑스, 미국
21	27	4 (3.2)	르완다, 토크
합 계		126	

근거: WHO(1988)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Geneva.

\* 초등학교 입학부터 의대 졸업까지

\*\* 초등학교 입학을 만 6세로 할 때

표 3. 총 교육기간 18년 이상인 국가의 의학교육 학제 비교

총 교육기간(년)	의대전과정(년)	의학교육기간(년)	국가수	비고(국가)
18	14	4	2	캐나다, 필리핀
	13	5	7	홍콩, 말레이지아
	12	61	4	한국, 일본, 태국
	11	7	1	페루
			51	
19	소계			도미니카(카리브해)
	15	4	3	영국
	14	5	1	독일, 이탈리아
	13	6	9	
	소계		12	
20	16	4	1	미국
	14	6	1	알제리아
	13	7	5	니제르, 아이보리코스트
	12	8	1	프랑스
	소계		8	
21	17	4	1	센트크리스토퍼
	16	5	1	센트빈센트
	14	7	2	르완다, 토고
	소계		4	

근거: WHO(1988)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Geneva.

## 2. 의학 전문교육 기간

의학전 교육에 총 18년 이상이 소요되는 나라들을 의학 전문교육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4~8년으로 다양하나 8년인 경우는 프랑스 1개국으로 고교 졸업후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예과 및 본과가 8년으로 단일화된 경우이다(표 3). 의학교육이 4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입학 전에 일반대학 2~4년을 이수한 후 본과 4년을 이수하는 경우이다. 한편, 의학교육이 5~7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나라와 같이 예과 및 본과과정이 통합된 경우이다. 결국 대부분의 나라가 의학전 교육(premedical education)에 2~4년, 의학 전문교육에 4~5년을 할애하고 있다(표 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사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군복무를 필해야 하므로 이 기간도 기본적인 의학교육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7년 이상이 소요된다.

## 3. 의학전 교육 기간(고교 졸업 후부터 의대 입학까지)의 단축 추세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의학교육 기간은 길지 않으나 의학전교육 기간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1~2년 긴 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대학들이 의학전 교육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 즉, 의과대학 입학자격으로 고3 졸업자가 곧바로 입학 가능한 학교가 1980~'81년 12개교(125개교 중 9.6%)에서, 1988~'89년에는 18개교(127개교 중 14.2%), 1994~'95년에는 28개교(129개교 중 21.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 2년 이수 후 입학 가능한 학교도 1980~'81년의 8개 학교(125개교 중 6.4%)에서 1988~'89년에는 10개교(127개교 중 7.9%), 1994~'95년에는 19개교(129개교 중 14.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4). 그러나 일반대학 4년 졸업 후

표 4. 미국 의과대학의 입학자격 변화 추세\*

연도	총학교수	입학허용 학교수			
		고3 졸업후	대학 2년 이수후	3년 이수후	4년 졸업후
1980~'81	125	12 (9.6)	8	108	123
1982~'83	126	12 (9.5)	9	109	125
1984~'85	127	15(11.8)	8	110	125
1986~'87	127	15(11.8)	8	110	124
1988~'89	127	18(14.2)	10	106	127
1990~'91	127	22(17.4)	14	94	126
1992~'93	126	26(19.0)	27	99	121
1994~'95	129	28(21.7)	19	87	120

\* AAMC Curriculum Directory, 1984-1985, 1988-1989, 1994-1995에서 발췌

표 5. 미국 및 카나다 의과대학의 1994~1995 입학 자격\*

입학자격	입학허용 학교수	
	미국	카나다
A	2	0
A+B+D	3	0
A+C+D	13	0
A+D	6	0
A+B+C+D	4	0
B	0	3
B+D	3	0
B+C+D	9	5
C	6	2
C+D	55	5
D	27	1
합계	129	16

\* AAMC Curriculum Directory, 1994~1995(부록)에서 발췌

- \*\* A: 고3졸업후  
 B: 대학2년 이수후  
 C: 대학3년 이수후  
 D: 대학 졸업후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는 대부분의 대학이 계속 열어 놓고 있다(표 4). 카나다의 경우에는 고교 졸업자에게는 의대 입학자격을 주지 않되 일반대학 2년 이수자에게는 입학자격을 주는 학교가 16개의 대학 중 8개(50%), 3년 이수자에게 입학자격을 주는 학교가 12개 대학(75%), 4년 이수자에게만 자격을 주는

대학은 1개교에 불과하다(표 5).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4 및 4+4의 병합제(학사입학제도 등)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이나 카나다 등에서 의학전 교육과정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의료정책 입안자 내지 의료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의학전 교육, 의학 전문교육, 졸업 후 교육 등 일련의 의학교육 기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전 교육과정이 4년이라고 해도 희망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학부 4년의 교육과정 중 교양 등 인문과목을 늘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Doblin and Korenman, 1992). 즉, 2~3년에 걸친 타전공 교육내용이 의사가 되기에 그다지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또는 4+4년제를 도입하여 의학전 교육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경우 기대효과도 있겠으나 문제점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점과, 선진 외국의 추세가 최근 의학전 교육기간을 오히려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만, 현재의 2+4년제만을 고수할 경우 의대 지망에 대한 동기유발이 뒤늦게 나타난 일반대학 졸업생을 전혀 입학시킬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문호를 다소나마 개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1. 의학과 입학 자격기준의 재설정

의사가 되는 교육과정인 ‘의학과’에의 입학(진입)이 현행과 같이 ‘의예과’ 입학으로서만 결정되는 것 만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는 검토하여야 하겠다. 즉, 일정기준(학점이수 등)을 충족한 일반대학 졸업자에게도 2년의 의예과 수료자와 동등하게 의학과(본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검토할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학과의 입학제도를 지금의 “진입제도(의 예과에서의)”에서 공개경쟁 “입학제도”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통합 6년제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러한 입학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의학과’ 입학에 실패한 의예과 수료자의 진로라고 할 수 있다. 재수, 삼수 등을 하면서 의학과 입학을 꾀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결국 일정 수는 의사가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의예과의 정원과 의학과의 정원에 차등을 두어 이러한 낙방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야로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 2. 의학과의 교육기간과 수여학위

현재 의학과(본과)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육기간이 몇 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특히 의학과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지니는 순간에 어떤 의사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따라 교육기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게 된다. 그러나 의학과 교육기간이 4년보다 더 길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교육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과정 내지 교육방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sup>8</sup> 현행 교육방법 내지는 교과과정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에 따라 교육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의 당위성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의예과 2년과 의학과 4년을 마치고도 [학사]학위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의학교육 내실화(의사양성 교육)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분명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의학과를 졸업하여 100% 모두가 의사가 되고 의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학위 명칭이 별로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다른 분야(특히 기초의학 또는 학문연구 등)로 진출하거나 교수직을 택할 경우에는 학위와 자격 인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과 졸업자에게는 최소한 석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자격의 학위가 수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학사입학으로 입학한 일부 학생은 이미 다른 분야의 학사학위를 이미 소지하고 있으므로 더 높은 학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졸업자의 학위 문제와 관련하여 연세의대에서는 의과대학을 6년제로 하고 졸업 후 석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4년제와 4+4년제의 병행 시도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해 온 6년제 의학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학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사들을 대상으로 한 4+4년제 의학교육과정을 일부 도입, 현 제도와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6년제와 4+4년제 의학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시도해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병행 방법으로는 학사편입학제도와 복수전공제도가 가능한 실례가 되겠으며, 서울의대의 학사편입학제도(안)<sup>3</sup>과 연세의대의 복수전공제에 대한 자료<sup>2</sup>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사입학제도(안)

##### 1) 학사입학제 도입의 타당성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의학과 1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학력을 평가한 후 허가할 수 있다; 학칙 제43조)이 아닌 학사입학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학내에서 논의된 것은 1990년 후반기이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2+4제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화, 다변화시키는 계기로서 바람직하다. 의학교육의 기회를 대학입학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개방시킬 수 있다. 또한 자연과학(화학, 물리, 수학 등)의 기초가 충실했던 학생이 의대로 입학하면 치료방사선학, 의공학, 의료행정학, 법의학 등 의학 이외의 지식이 필요한 특수 의학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 2) 학사입학제의 장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의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그만큼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어 의욕이나 학습면에서 열성적이고 성실한 면이 있다. 의학사의 학문적인 수준과 인성교육 면에서의 향상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즉 학사편입학생이 의예과 졸업생보다 인성교육 이 항상 훌륭할 것이라는 점은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배경의 의사 혹은 타분야와의 교류가 가능하다. 학사 입학제의 도입으로 기존 학제의 자율화와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연과학, 인문과학을 전공한 중 일부가 기초의학분야를 전공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대학원 과정의 개선도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 3) 학사 입학제의 단점

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가 만 28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자연대 출신들의 과다한 진출 희망이 있을 경우에 혹시 혼란이 있을 소지가 있으며, 생물학 등 유사 관련학과의 발전을 저해시킬 소지도 있다. 학생선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의료비의 상승요인이 생길 것이다. 의예과 지원생의 경우 정원이 줄어 의예과 입학의 어려움이 더 커짐으로 인하여 학부모의 반대도 있을 것이다.

## 4) 해결 방안

- 1) 2+4, 4+4등 획일적 학기제 학년제를 학점제, 과목이수제로 전환한다.
- 2) 선발시에는 선수 과목, screening test, 1차, 2차

선발 등 수학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3) 전반적 4+4제도의 전환보다는 점진적 혹은 2+4제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선발대학의 장단점을 판정해보아야 한다.

4) MD-Ph.D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연한을 줄이고 기초의학 연구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본다.

5) 학사입학이 제2의 입학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지 않도록 한다. 즉 전공에 충실했던 학생이 선발되도록 한다.

추진시 실제 시행에서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실시해야 한다.

## 2. 복수전공제도

연세대학교는 1989학년도부터 복수전공제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의학계열은 학과 특성상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1994학년도부터는 의과대학의 복수전공제를 개방하고자 의과대학에서 시안을 작성하여 1993년 11월 상임교수회의 심의와 연세대학교 본부의 승인을 겨쳐 1994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연세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학년 전체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우수한 자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등 기초과학과목을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제의 정원은 입학정원의 5%(7~8)명 이내에서 운용키로 하였다. 의과대학 복수전공 희망자는 의과대학 1학년부터 이수하여야 하나 치과대학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2학년부터 이수가 가능하다. 1994년부터는 연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복수전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학과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본과 편입학제를 이용하여 1994년 현재 13명('94년 5명, '95년 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의 학부 전공분야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생화학, 전자공학, 환경과학, 임상병리학, 식품영양학, 의상학, 치의학이다.

이 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실체적으로 자연계열학과 학생이 지원 가능하겠으나 점차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도 위의 자연계열 기초과목만 이수하면 복수전공이 가능하며 이 복수전공제를 수년간 실시하면서 그 폭을 넓혀 학사편입제를 병행하고 점차 학생수를

늘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1</sup>

## 결 론

높은 인성과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의사의 배출과 우수한 기초의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4+4년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학전 교육기간만 늘이는 것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이 크게 의문시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 양성 제도가 이원화되어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현실성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1) 임상의사, 특히 1차진료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6년의 학제로 충분하며, 4+4년제가 될 경우에는 계속되는 전공의 과정, 군복무 과정 등으로 인하여 의사의 사회진출이 너무나 자연됨은 물론, 의료비 상승 등이 크게 우려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의학전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2) 의학자, 특히 기초의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기초의학자의 부족 현상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3)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의사를 배출할 경우 기존 의과대학(학부)에서 배출되는 의사와의 균형 문제, 인력수급 문제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4)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기대되는 장점은 학사입학제 또는 복수전공제 등을 도입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약간의 제도 개선만 하면 될 것이다.

결국, 현행 6년제 의학교육 학제를 유지하여 의사 양성 제도가 이원화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며, 다

만 의학전 교육기간에 대하여서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원의 일부에 대하여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사입학제 또는 복수전공제 등이 우리 나라 여전에서 가장 바람직한 학제라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1. 백광세: 의과대학의 학제 및 학위제도. 제29회 의학교육 세미나(의과대학의 학제개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발행, 1995
2. 이순형 외: 의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995
3. 조수현: 의과대학의 입학제도(특히 학사편입학에 대하여). 제29회 의학교육 세미나(의과대학의 학제개편).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발행, 1995
4.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제29회 의학교육세미나-의과대학의 학제개편. 의학교육 제23권 아림인쇄, 1995
5.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 Curriculum Directory, 1994-1995
6. Doblin B, Korenman S: The role of natural science in the premedical curriculum. Acad Med, 67:539-541, 1992
7. WHO: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Geneva, 1988
8. 윤성도: 의예과 교육개선 방안. 한국의학교육 4: 4-10, 1992
9. 김용일, 윤선도, 안윤옥, 곤윤웅: 의예과 과정에서 2中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과목 '의학과 의료(의학개론)'의 개발. 한국의학교육 5:66-78, 1993